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52호 현대불교

29

2011년 9월 7일(음 8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제 뿌리를 믿고 뇌야 모두가 원력이 되는 겁니다

더우신데 이렇게 감로로 양식을 삼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더불어 말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서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사시다가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자(여):** 스님, 진주에서 왔습니다. 큰스님을 뵈게 되어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한마음선원을 알기 13년 전에 남편이 양 다리 수술을 받고 큰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가 6명이고 대학생이 지금 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합천 상가에서 살았을 때, 465평이라는 논이 있었는데 그 논이 도시계획에 묶여서 22년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례서는 애들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많고... 제가 지금 너무 그 눈을 못 팔아서... 이런 말씀 스님께 드리기 죄송합니다.

**큰스님:** 어떠한 길이든지 가지 못할 길은 없습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몸 안의 그 모든 업식으로 인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 업식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것을 거기다 되입력을 하시라구요. 되입력을 하시면 새 업력이 들어가서 새 물이 나와서 새 물을 먹게 되니까, 앞서의 그 모든 업식의 고가 무너져 버리죠.

그렇게 모든 거를 거기다가 진짜로 믿고 놓으세요.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 낚아 그 모두가 원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업식 자체가 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 마음의 선장이 다스리면서 모두 공(空)해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털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는 나가서 조절을 하고, 안으로는 바로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는 그러한 법이 되니까요. 그게 행이예요. 법행(法行)!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막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같이 한마음으로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질문자(여):**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스님, 뵈게 돼서 무척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한 8개월 전부터 별다른 이유를 모르게 목이 돌아가면서 막 뒤돌아지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계속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그림 · 최주현

검사나 여러 가지 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해 보자 해서 해 봤는데, 특별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계속 심해지면서 자꾸 뒤돌아지는데, 스님께 서 마음 좀 내 주십시오.

**큰스님:** 날더러 마음을 내 달라고 이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몸 속의 그 생명들이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온 업식들입니다.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그 생명들이 인연이 돼서 모두 합쳐진 한 몸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식에서 나오는 아릇한 증세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더 잘 알겠지.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이 모든 게, 그 다섯 가지 종류의 오신통이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애. 그래서 '목이 이렇게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입력을 하는 겁니다. 되말

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꿩잡아질 수 있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시장에서 술이나 수세미 이런 걸 파는, 아주 오래 여기 다니시던 분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다니죠. 그런데 다니기 전에 고개가 그렇게 학생처럼 돌아가질 않아서 왔어요. 그때 내가 상원사에 내려와서 신도 집역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절을 하는데 말이요, 얼마나 극진히 삼배를 하는지 남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내가 볼 때에 '남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저렇게 극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처님도 안 모셔 놓고 그 방식,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절하라고 하니가 거기다가 진짜로 믿고 그냥 삼배를 극진히 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저렇게 믿고 삼배를 올리

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받으신 거지 내가 받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극진한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한데 이어진 거예요. 동시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목이 그냥 풀렸대요. 가다가 말입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그러니 그것이 도깨비장난 같고 요술쟁이 같고 하지만, 우리가 전부 요술쟁이이고 도깨비장난이고 탈린 트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모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을 각자 띄워놓은 것과 같아요.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치면 "아이고, 살려 달라!" 하고 뭐, 아우성을 치게 되죠. 학생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죠. 지금 고개가 안 돌아가니까 파도가 치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집중을 어디다 해야 하나? 아주 일어서서 나 죽는다고 살려 달라고 바깥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침착하게 가지

고, 선장더러 하는 소립니다. '선장! 이 배를 가는 곳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어!' 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믿어서 거기에 한마음으로 뭉칠 때, 가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이 그 목도 파도가 치다가 선장이 잘 이끌어 가고 그런다면 파도가 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파도친다고 해서 제각기 일어나서 우왕좌왕한다면 배는 뒤집히고 말죠. 영영 고치지 못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겁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내 몸뚱이를 끌고 가는 선장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진짜로, 마음이 묘한 거니까 마음을 그렇게 가지세요. 진짜로 믿고, 그리고 자주 와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고개가 왜 빼떨어졌소? 허허허... 그게 세포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들어 있어서...

**질문자3(남):** 스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법형제 심의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심(下心)을 하면서 일체 만물이 스승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 법형제회도 지난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 개의 신행단체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큰스님께서 내외적으로 더욱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큰 마음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나한테 내 달라고보다도요, 이거 보세요. 모두 내 주인공의 한마음을, 한 뿌리를 믿고 맡겨 놓으세요. 일체 뿌리가 한 뿌리라면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일체제물의 마음은 내 한마음에 찰나찰나 나투시니 바로 한마음에 계시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일체 선장의 마음은 한마음이다. '당신만이 이끌어 갈 수 있고, 당신만이 풀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화목을 가져오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조절을 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자생중생들을 화(化)하게 해서 보살로 응신(應身)이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시면 일체가 모두 들립니다.

**질문자3(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닌 필연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10개월 전에 부산 모 체육관에 가서 관장님한테 운동을 좀 배울 거라고

▶▶▶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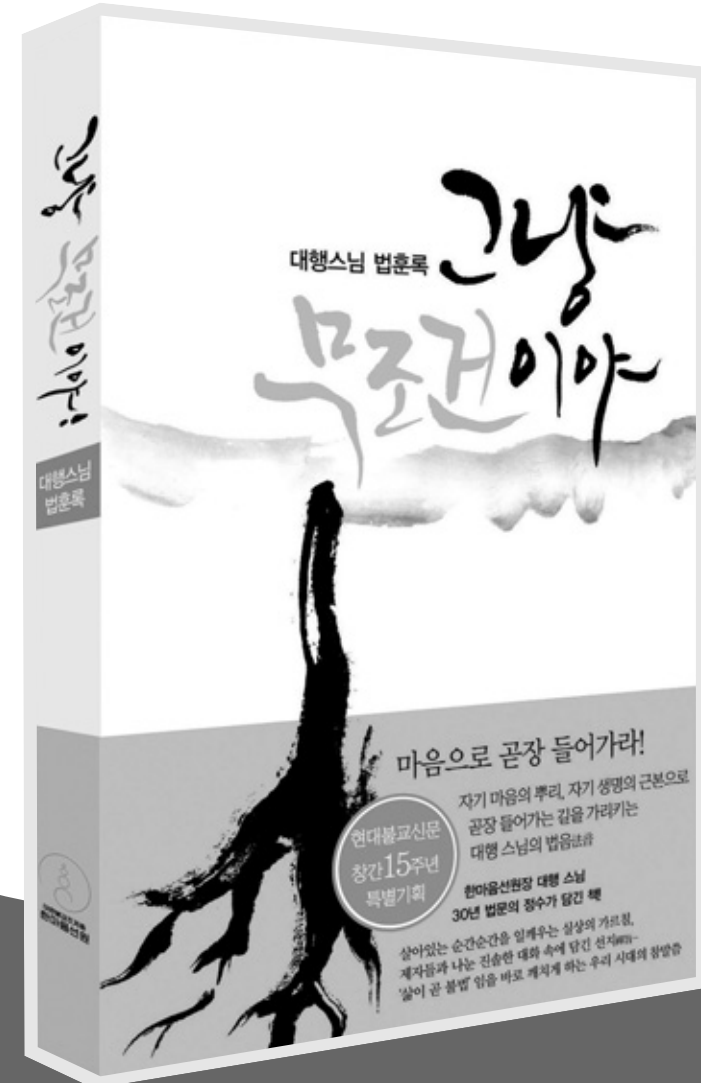
- 본문 중에서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상  
www.hyunbulshop.com



#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기에 달렸으니

29면에서 계속

서울로 오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영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부산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내려와서 직접 지도를 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하면 '그건 뭐 우연히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필연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옆에 앉아서 옛날에 연락하고 싶었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할 때에 전화가 와서 받으면 그 친구가 목소리를 전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장모님이 마산에 가서서 처 자식을 낳고 혼자 오기가 좀 마음이 껴뻐했었는데 밤에 와서 전화를 해 보니까 장모님이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 참 묘하구나!' 했는데 스님 말씀대로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보아 넘길 수도 있는데 지금이 안되니까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처 외숙모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집에서 사실상 손을 전혀 못 쓰는 상태인데 제가 결혼을 할 때 그 얘길 들었을 때는 그냥 무심히 흘려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안되는 겁니다. 또 그 외숙모 말 되는 분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더 내 가지고 처 외숙모 얼굴도 모르지만 한번 공부를 시켜볼까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로서는 교회 다니는 그 처제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큰스님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올라왔습니다.

**큰스님:** 기독교를 다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내가 이 세상에 출현을 했으니 나부터 있는 겁니다. 나부터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밖의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더라도 주(主)는 반드시 나의 근본, 마음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그 하나의 근본으로 인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바로 당체라는 말입니다. 천체. 그러니까 '불교'라고 그랬습니다. 불(佛)은 천체 생명이고, 교(敎)는 천체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는 처제 가슴에 있소.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가슴에 있는 거니까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아오."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고 아픈 사람도 그렇게 관하게끔 알려 주세요.

기독교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살리려면, 기독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 부담을 가지고 나누지 마시고, 그것도 역시 한마음이라고 해야죠. 하나로 돌아가요. 지구촌의 모두가 지구를 타고 하나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갈라져서 돌아가지 않죠? 하하하...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라도 주체는 너의 가슴에 있으니까, 그 가슴 깊이 들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말고 안으로다가 '주님, 당신만이 낮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찾라고 알려 주세요.

**질문자3(남):**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모두가 필연적으로 돌아가고, 인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므로 거짓도 없고 우연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율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전율이 오는 경우 혹시나 남이 볼 때에 누(裸)가 될 것 같으면, '전을 대신에 뜻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내면 컴퓨터를 누른 거와 같아서, 전율이 남보기에 누가 되지 않게 뜻으로 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마음대로 응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세요.

**질문자3(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 의식, 영혼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늘 사용은 하고 있지만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스님께서 한번 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몸 안에 천차 만별로, 가지각색으로 용도에 따라 구별이 된 의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면 선, 악이면 악으로 말입니다. 또는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 내 몸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지 모든 것을 선장의 그 심봉한테 맡기면... 즉 말하자면 선장이란 이름해서 선장이자 자기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진아(眞我)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같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그 부동한 선장한테 다 일임해 놓으면 내 심상대로, 생각한 그대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컴퓨터를 누르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알려 드리면 잘 아시겠죠? 하하하...  
**질문자3(남):** 큰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욕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4(남):** (혜진 스님 통역) 스님,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 비엔나에서 왔습니다. 약 2, 3년

될 이유가 있습니까?

**큰스님:** 누구나 다 그럴 이유가 있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자기를 형성시킨 근본 자아가 있거든,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는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 영혼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업식, 그 업식 선업이 전부 같이 혼합이 돼서 형성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문도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의 근본 자아를 진짜로 자기 뿌리로 생각을 하고...  
**혜진 스님:** 거기까지만요, 스님. (통역한 후) 잘 알아들었습니다, 스님. (대중 웃음)

**큰스님:** 허허허... 그러니까 그 업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나오는 자리에다 '너만이 잠나가 있는 거를 알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물리가 터지게 할 수도 있고, 지혜를 내게 할 수도 있어.' 하고 되팔아서 일임한다면 잠자기가 거기에서 발견이 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이야, 밑에 양금이 가라앉아서 시뻐결게 물이 들어 있는 병에다가, 저 뭐야? 풍뎡을 조금 넣어서 씻어 가지고서 맑은 물을 거기다가 받았어. 받으니까 그 거품이나 뭐나 그냥 짝 위로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그 나쁜 물이 다 없어지고 맑은 물이 채워지더라고. 연방 맑은 물이 채워지면서 흘러 내려오더라고. 그거와 같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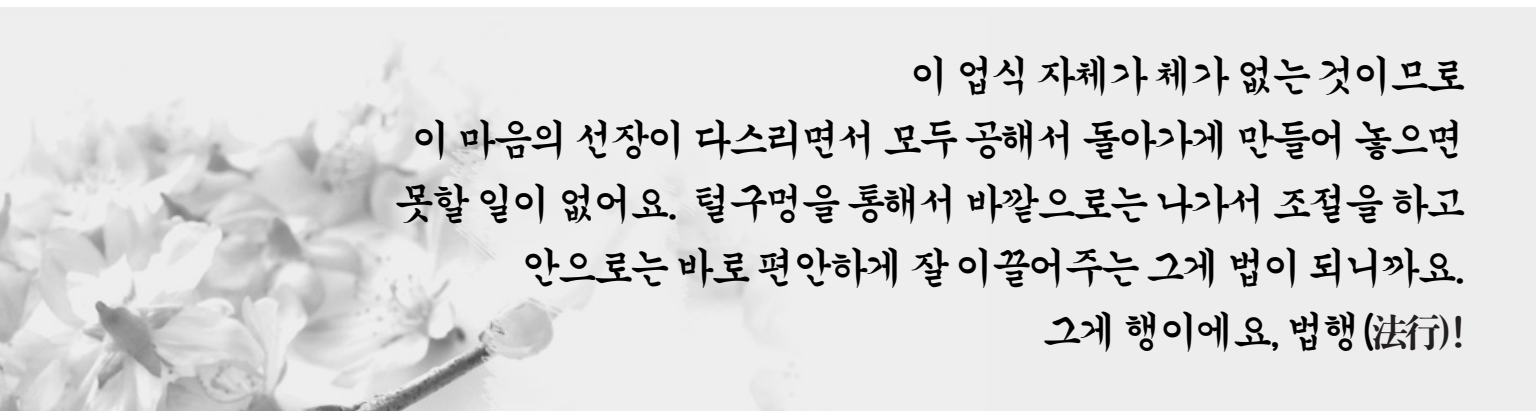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그 생각이 나게끔 하는 거니까 없애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에 되팔겨라 이거야. 내 말은 끝났네, 이제. (대중 웃음)

**혜진 스님:** (통역한 후) 예, 스님.

**큰스님:** 내 말이 끝났다고, 하하하...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조그만 책도 주고, 잘 알아서 좀 리드해 줘. 답답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은 하나도 없어, 생각하기에 달렸으니니까. 금방 누가 뭐 하혈을 하고 죽는다고 해도 답답한 거 하나도 없어. 그만큼 믿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방방방방 뛰죠. 배 안에 탄 중생들이 그냥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면 배가 뒤집히듯이 말이야. 그건 꼭 뒤집히고 만다구.

**질문자4(남):**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대중 웃음, 박수)

(다음 호에 계속)



**이 업식 자체가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 마음의 선장이 다스리면서 모두 공해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털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는 나가서 조절을 하고 안으로는 바로 편안하게 잘 이끌어주는 그게 법이 되니까요. 그게 행이요, 법행(法行)!**

모두 자기가 뿌려 놓고 자기가 기르고 또 거두고 이러는 거지 '우연'이 어딴 겁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3(남):**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회에 참석할 때마다 자주 경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 몸에, 글씨,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전율을 느낀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큰스님:** 그것은요,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나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만 한다면 전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전체 돌아가고 전체 이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진리를 담은 바로 살아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열을 받으려고 장치를 해 놔는데, 그 장치에 태양열이 받아졌을 때, 그 받아진 자체를 갖다가 내가 어떠한 용도에 전력으로 쓰려고 아주 강한 믿음을 진실하게 가졌을 때 그 전율이 오는 겁니다.

선장은 무엇이나? 그렇게 의식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바로 능력만 배출해 줄 수 있는 심봉과 같은 근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근본! 그거는 부동합니다.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봉이죠.

그러니까 그 심봉에게 전부 맡기면, 돌아가면서 그 심봉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입력됐던 것이 심봉에 의해서 모두 없어지면서 새로 들어가는 마음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알고 믿고 행을 해야, 그게 체현도 되고 물리가 터지는 것도 알게 되고 나, 참나가 있다는 것도 어렵잖이 나타내게 되고, 그랬을 때 자꾸자꾸 놓고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확 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력하는 것은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버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바퀴 쓰는 거죠. 연장은 건 바퀴 쓰고 좋은 거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 나가는 거죠. 해 나가다 보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로 돌아가는 한 혹성의 별성들 전체가 은하계처럼 내 몸통이 속에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생활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

넘게 선(禪)을 공부해 왔습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나'가 누구인지 2, 3년간 계속 찾아 왔습니다. 제가 그 길을 찾아오면서 두 번이나 스승을 바꾸었고, 3개월 정도 화계사(華溪寺)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왔는데 요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갑자기 그 의문이 내면에서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승산 행원(行願) 스님이 이 공부를 하던 자신을, 자아를 발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면의 길을 찾아서 공부를 해 왔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지를 요즘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스님.

**큰스님:** 그런데 승산 스님 얘기는 또 뭐야?

**혜진 스님:** 화계사에서 여름철을 났습니다. 3개월을, 그리고 내일 비엔나로 돌아가는데 어떤 스님을 만나서 오늘 한마음선원 큰스님 법문이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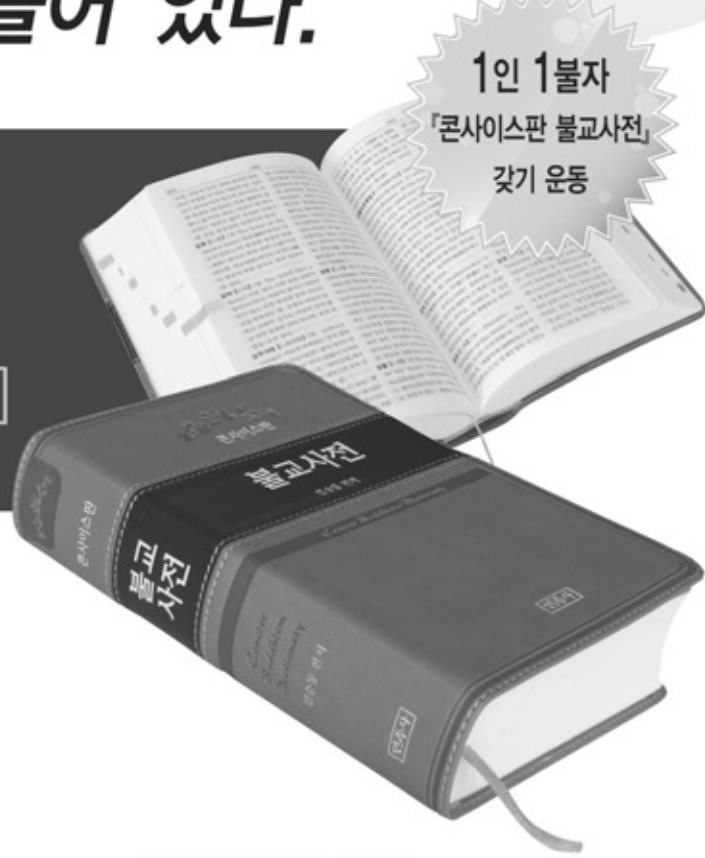
**질문자4(남):** (혜진 스님 통역) 스님! 제가 내적 자아, 저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계속 해야

## 불자들 간의 선물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사찰의 각종 행사 때, 불교대학 졸업식 때,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1인 1불자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갖기 운동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명확·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뻤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된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중국·한국·티베트·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원시·부파·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사상·철학·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